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代價 壹枚四錢 壹個月八拾錢 參個月貳圓參拾五錢 六個月四圓五拾錢 壹個年八圓八十錢(郵稅並) 地方必先金
廣告料 五號活字壹行壹圓 四號活字壹行貳圓 欄內 七號活字 特定料金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發行所 朝鮮日報社 京城府堅志洞三二

社說

頻發하는日學生의暴行 —裡面에潛在한誇大妄想病—

一

近者學生의風紀問題가 자못社會的으로物議를닐으키어 識者를嘲嘆케하는바잇스니 一般的으로內外人學生을通하야男女間의操行에關한問題도적지안커니와 더욱日本人學生의蠻行하는暴行事件은 가장觀聽者의耳目을놀라게하는바잇다 最近旬日間에發生한者만指摘할지라도 向者漢江의船遊場에서 善隣商業學校의小林某外數人이 朝鮮人船夫를毆打致傷케함을비롯하야 京城大學豫科生等이 電車의乘務員에게 暴行을加한事와밋京城中學의學生等이 集團的으로大道上에서 通行人에게 蠻行을加하야 四五人의負傷者를내인것가튼것은 아즉도路上人의話題에올르는바이오 昨日에도 同一한京城中學生의電車乘務員에對한暴行이잇서서 언제이나 모다警察官署의職權의行使를빌게되엇스니 이것은識者의看過할수업는 不祥한現狀이라할것이다

二

活潑進取의氣像에富하고 社會的無責任한處地에잇서서 能히放膽豪遊할수잇는 靑年學生들로서 前後를思慮顧忌업시行動하는곳에 써로常軌를逸함이잇는것은 아모驚怪할바업는尋常한事이다 그러나그것이一時에偶發한些少한過失로서가아니오 자못常習的으로前後에反覆하야 마치揚揚自得하는態度에나옴임을볼때에는 애오라지憂慮와厭忌의情을닐으키지아니할수업다 하믈며彼等이모다日本人이라는民族的優越感을가지고 流血을잡내지안는好戰的習性을發揮하야 朝鮮人인對手者에게 容赦치안는侮辱을加함을能事와가티생각하는것은社會的으로 매우微妙하게人種的惡感을挑發하는結果를誘致하게되는바이라 이것이單純한學生의風紀問題를떠나서 그社會의公安을妨害함이 매우만흠을斷言하는바이다

三

吾人이日本人을對할때에 優秀한政治家 教育家 學者 宗教家또는吾人과同志되는者를除한外에 一般으로形言치못할不快와憤懣을 늣기게하는것은 못그들의先入的인差別感에因한바이다 이것은天下에萬人한가지로體驗하는 매우陳腐한事實이니와 吾人이새로히指摘할要도업거니와 朝鮮에移住하는 日本人이그의男女官民을勿論하고不知中에俗化 惡化하야 漸次天眞스러운人間味를喪失하고 자못荒漠하고輕佻의習癖을所持하게되며 優柔良順함을그의本色으로하는日本의女性들과 밋溫良親切함으로의特質로써하는그들의小兒들에까지도 그純潔한天眞을擊滅하고大部가橫暴한強者의態度로變化하는것은 다만兩民族의利害的相對觀으로뿐아니라 그의殘虐한人類愛의見地로본다할지라도 매우嘆惜할墮落임을意味하는것이라 吾人은가장洛都한雜性的見地로서 그의不可함을糾弾하는바이다

四

街頭에서 商店에서 車中에서 集會場에서 온갓階級의日本人들이 모다驕傲不遜한 態度를가지는바는 이에重複列擧할要가업거니와 그의根本的病弊는大部爲政者들의錯誤된政見과 밋그一般教育方針의失當함에基因한바이라 第一로彼等은日本人의歷史的 人種的의先天的優越感을 助長或은把持케하기에 항상汲汲할뿐아니라 그로서朝鮮人에게強大한印象을주어絕對로그에抗爭치안을觀念케하고저함과가튼傾向이잇는바이오 그의上官밋教育者들이항상이러한暗示와밋說明으로서 下僚와後生들을鼓吹하는바잇스니 任那에『日本府』設置說과或은故意로誇張된豐臣秀吉의朝鮮侵入의事蹟 또는潤色된西鄕隆盛等의所謂征韓論의思想과氣分等의支配되어 先入的의尊大性과敵愾心이 써와곳을따라發露되게되는바이니 近日에頻發하는日本學生의暴行은 오로지이러한事實에原因하는바이다 故로吾人은이로써單純한學生의風紀問題이라하기보다도 차라리對立한兩民族사이에넘지못할深溝에因함이라함이다

五

吳귀대人種的偏見과階級的反感은 現代의人類가解決치못한兩大問題이라 홀로朝鮮에限한바 아니어니와 그中에도將來를支配할 進步的處地에잇는靑年의學生等이 一層酷烈한偏見과惡辯을가지는것은 兩民族의前途를더욱暗澹한妖雲으로써가리게하는바이오 더욱히그所謂圓滿解決의熟語가民族的葛藤과가튼重大한現實問題에는 何等適用의可能性이업는夢幻的槪念임을새로히痛感할것이다 吾人은日本人爲政者教育者밋一般識者의態度가 엇더케改善됨이잇슬가를疑訝의눈으로注視하려한다

一致하야對峙하자 張作霖等段執政에게通電

(北京十日發) 張作霖、李景林、張宗昌等의連名으로段執政에게通電하야『英國警官의再三次殺傷事件으로全國이商工業을休하고騷然한다 余等은또愛國의心이업슬것인가 英國側은尚今是非를不顧하고公利國交를無視한나 我執政愛國의狀을忍見할수업다 嚴重한態度를持하야余等國防의任에有한者는一致하야此에對峙하라』한다하얏더라

外交部應接室을 學生團이亂入破壞

(北京十日發) 九日夕에外交部를訪問한學生의一隊는外交總長에게面會하얏는데其要求가너무過激함으로因하야外交總長은段執政에게相議한다고裏門으로執政府에赴하려고 學生은總長이逃亡하는줄로誤解하고應接室에亂入하야價格二千弗의大鏡과電燈、大時計等을 破壞하고凱歌를唱하며歸하얏는데 警官은다만傍觀할뿐이더라

安徽省도運動開始 全國的罷業示威를決議

(東京電) 某所着=蕪湖에서는八日夜外交講演會商務總會及學生團體의聯合會를開하고日英에對하야食糧을供給치말일 日英貨排斥、來二十日中國全土에亙한大罷業을行하는同時에示威運動을할事及上海罷業職工에게銀二千弗을送附할事를決議하엿더라

上海罷業은鎭定 東洋紡績은繰業開始

(上海十一日發) 日中陸戰隊上陸以來楊樹浦方面의危險은減少하야東洋紡績은十一日朝부터繰業을開始하야職工八百名은出勤한바成績이良好하며東華紡、上海紡等의諸紡績會社도不遠復舊될터이더라

모로코叛徒擊退

(쎌도無電十日發) 모로코西部에서叛徒의多數는투코스地方에侵入하엿스나아토우두及알시카누의佛國前哨屯所로因하야阻止되엿스며 中部에서는케베두及메와사쿠드附近을向하야侵入하여왓스나擊退되엿고 本部에잇는하두카스叛徒는佛國에忠實한페니푸히야의士民으로因하야擊退되엿다더라

露飛機六臺北京에 旅客機三、陸軍機三

(莫斯科十日發) 旅客飛行機三機及陸軍機三機는北京에向하야莫斯科를出發하엿는데 右飛行에就하야가장難關은고비沙漠의橫斷이라더라

莫斯科精神과 諸民族의反抗의聲 토로、지노兩氏의聲言

(쎌도無電十日發) 露國토로츠키氏는一論說을發表하야中國은將來모스코精神은다만革命的일뿐안이니라同時에壓迫밧는諸民族을結合統一하는精神인것을提供함에至하리라述하고特히英國을攻擊하얏고 지노비에푸氏도一個公表書를發하야不遠하야서北京、上海、『칼갓타』『마도라스』『가이로』及『알렉산드리아』가聯結하야反抗의聲을發할지며全世界의勞働者는此에呼應하리라고述하얏다

上院再選規則 樞府本會議上提

(東京電) 貴族院多額納稅議員互選規則改正案及帝國學士院議員互選規則에關한樞府精査委員會의二十餘個條에亙한修正案에基한樞府側의通告를밧고政府에서는昨十日加藤首相以下協議의結果 樞府의修正意見에同意하기로決하고原案을撤回하고修正案의再次御諮詢手續을得하든바 樞府는十一日午前十時부터事務所에最後의精査委員會를開하고濱尾議長穂積委員長以下各委員、三土書記官長等 樞府側만 參集하야再諮詢案을逐條審議하야畢竟兩案의可決을見함에依하야十七日本會議에 兩案을다 上提할터이더라

北樺太의利權會社設立

(東京電) 北樺太利權會社設立에對하야는十日首相의實業家招待에依하야設立하기로決定되고更히首相의指名으로實行委員十數名을選定하게된바此에對한勅令案及定款의大要는左와如하다

(勅令)
一、本會社의設立은免許主義에依함
一、株式은記名式으로함
一、會社의定款變更並合併과如한境遇는主務官廳의認可를受할
一、政府는監督上必要한境遇는適當한監督規定을勅令으로規定함

(定款)
一、普通會社의定款과殆히同一하나
가、石油會社는사카렌石油株式會社라稱하야資金은一千萬圓으로함
나、石炭會社는北樺太起業株式會社라稱하야資本金一千萬圓一株五十圓一回拂込三十圓(但一株五十圓으로一回拂込二十圓)
株主代表者는近日渡露하야確實히露國과契約한後總會를開할터이라더라

京畿教員檢定試驗

京畿道의今年度小學教員檢定試驗은左와如히施行한다더라
一、願書受付는七月末日外지
二、試驗場은道立師範學校內
三、試驗日時는八月廿五日로부터廿九日外지
四、受驗出願人은八月廿五日正午外지道學務課에出願할事

金堤碧城 少年團復興

全北金堤碧城少年團은這間諸般事情으로因하야有耶無耶에따라무쳐잇게된바 當地一般少年들은어린이의修養機關의한곳도업슴을切實히늣기는同時 一方으로는少年會를새로이發起創立하자거니 一方으로는旣成團體가잇스니碧城少年團을復興식히는便이낫다하야 結局去七日午後四時에當地鄕校明倫堂에서碧城少年團臨時總會를開催하고臨時議長金演豪君의司會下에決議된事項과選擧된委員은如左하다고(金堤)
一、本團前規를全部를修訂하되一切를委員에게一任할것
一、本月中에正式으로臨時總會를開催하고主要한諸般事項을討議하되一切準備는委員에게一任할것
◇委員 趙誠輝 白泰燮 溫樂와 李拜洪 金演豪

實城靑年素劇 筏橋에서盛況

全南寶城邑靑年會에서는同會의經費를補充키爲하야素人劇을組織하야地方을巡廻하든바 去五日에筏橋에到着하야當地靑年俱樂部에서出演하엿는데 一般의同情金이遝至하엿다더라(筏橋)

無誠意한鎭安面의非難 市場擴張工事는말뿐으로成功?

多年懸案으로問題이던鎭安市場擴張에對하야는旣報한바이거니와 此에責任者인鎭安面에서는昨年解氷期를利用하야擴張工事를하겟다고傳하던바 今春도夏來하얏스나何等施設이無함으로一般面民은날로着手하기로만苦待中이나 面當局者의無誠意로因하야今年에實現될可望이업슴으로此에失望한一般面民은鎭安面當局者를甚히非難한다더라(鎭安)

筏橋에도盛況 張飛行士의歡迎

張德昌君의復興號가全南筏橋에飛來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 豫定대로去四日午前七時頃에到着하야市內市外를一週한後安着하엿는데 觀衆은멀니順天、高興、寶城、各郡으로부터數萬의群衆이集會하야筏橋初有의盛況을이루엇는데 當日午後三時頃에는當地公普校內에서後援會의歡迎會가잇섯고 五時頃에는張飛行士의經驗談과飛行術講演이잇섯스며 다시地方有志의慰安會가잇섯는데 翌五日午前八時頃에飛行을繼續하야木浦로出發하엿다더라(筏橋)

羅州勞農月例會

羅州勞農共榮會에서는去五日午後八時에羅州靑年會館에서第十二回月例會를開催하고日雇賃金에對하야三時로먹이지아니하면五十錢、三時로먹이지아니하면一圓式밧기로決定하엿는데 만약이決議에服從치아니하는會員이잇스면嚴重한處分을하기로하고閉會하엿다더라(羅州)

公州春繭共賣

忠南公州郡農會에서는本月十二日부터七月十日外지二十八日間春繭共同販賣를施行하는바販賣場所와方法은다음과갓다더라
一、販賣場所 公州郡農會蠶繭共同販賣場(公州旭町)
一、販賣方法 生繭重量販賣
一、代金 即時支拂(公州)

長城의高齡者

全南長城郡管內의高齡者數와氏名은如左하다더라(長城)
東化面月山里羅巖集 九五 男
北三面扶興里李海春 九七 女
北下面大興里李龍九 九二 女
北下面藥水里趙明習 九一 女

鎭川庭球部의歡喜

鎭川靑年會庭球部에서는去七日에陰城에開催된三郡庭球試合에遠征하야年三回로三戰三勝하야 優勝旗를永久取得하엿슴으로會員一同은매우깃버하야提燈行列로市中을巡廻하엿스며 選手慰勞의設宴도有하얏다더라(鎭川)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 以內 住所氏名明記

金堤靑年運動의統一

◇金堤의靑年運動은一九二○年에첫소리를내이엿다 以來五六年을자라나오는동안에波瀾曲折이업지아니하엿다 不幸인지幸인지思想의驅隔은過去二三年을두고自體의內部에種種의軋轢을演出하다가 到底히相容할수업는思想은畢竟無產靑年會를産出하엿고 또새로히新興靑年會가創立되여 靑年、無產、新興三個靑年會가嚴然히對立하야 그運動이不振한것이事實이다

◇넓지안흔金堤에잇서서以上과如한分裂은運動線上으로보나무엇으로보나더말할수업는不祥事이다 그래서누구던지合同을恒常늣기게된바 近者에新興靑年會의斡旋으로合同을前提로두고來十四日에三個靑年會의幹部가會合하야統一問題를討議한다한다 金堤靑年運動의 大機運이過去에잇서軋轢과分裂이잇든것과이제그機運이進促되여未久에統一의實現을期케된것은時代의切實한要求이며 이일을斡旋하는여러鬪士의努力이다

◇이와가티時利와人和가서로合하야 이에金堤靑年運動의統一이今也實現케된것은衰殘한우리運動에一大曙光이아니고무엇이라 吾人은이點에잇서嚴肅한感激을늣기며여러鬪士의苦心과努力을謝하는同時에 散漫에서統一로 分裂에서團結로 어서어서한뭉치되기를期待한다

◇우리의運動도過去의不純은掃蕩이되고步一步前進으로 거러든다 無定見은定見으로 分裂은合同으로! 다시말하자면組織的으로! 아! 團結과統一을엇기여 金堤靑年運動의統一을絕叫하는그우렁창한소리 그리고그生氣가躍動한부르지짐을들어보아라

◇아! 金堤靑年諸君이여! 우리는이예에外지너무나氣力이沮喪한것이事實이엿다 따라서우리의存在가명말微弱하엿다 이제예는왓다 우리의氣力을振作할예는왓다 다가티團結을爲하야統一을爲하야努力하자! 그리고우리의使命을힘잇게부르지지 우리의前途를開拓하자(金堤出)

長興電話開通式

全南長興市內電話는六月一日부터開通되엿는바同六日午後四時에長興面事務所에서開通式을擧行하엿다더라(長興)

五泉里養老宴

全南高興郡山面五泉里靑年會에서는去一日에本里父老를招待하야養老宴을開催하얏는데 同靑年一同의祝辭와父老의謝辭가잇슨後餘興으로羅老島로부터招來한妓生의歌曲이잇서快樂한속에閉會하엿다더라(筏橋)

淸州基靑總會

淸州基督靑年會에서는去七日午後三時부터淸州禮拜堂에서同會定期總會를開催하고財政問題에關한件과月捐金과義捐金收納에對한對策과其他諸事項을討議하고同四時半頃에閉會하엿다더라(淸州)

面長排斥 奉化明湖面民이 戶稅不公平과民意를無視로

慶北奉化郡明湖面에서는該面民이今年度春期戶稅調定에不公平하다하야 面長의非行을擧하야數朔前부터郡當局과警察署에陳情하엿스나 今日外지何等의處置가無함으로 去五月十七日에面民代表로金平圭氏가다시陳情書를郡當局에提出하고面長의非行을一一히陳述하엿다는데 그陳情書의內容은如左하다더라
一、北谷里鄭柱晟、李中洞、裴富元은地價八百圓假量인데面四等으로戶稅를調定하고 面長外叔인趙某는地價一千八百圓假量인데面五等으로調定한事
二、戶稅收納簿에面一等은七十四圓十六錢이고二等은五十二圓八十錢인데 面長의親戚인金右圭金炳廷은面一等으로調定되엿스며 無威節한親戚趙淳은面二等으로調定되엿는데 二等은不拘하고平均하야六十三圓七十一錢式不法徵收한事
三、自己外家에다녀오고出張費를請求한事
四、前日面書記로被任되엿時自己擔當한事務가模糊曖昧함으로前面書記洪鍾觀에게保助를受하며 面或代理로執務케하고手當金으로金五圓을面苗圃人夫賃料目으로經費支出하야公金狹雜한事
五、面書記中洪性夏、金達漢兩人은何等過失이無함도不拘하고 面長의非行에對하야不忠實하다하야免職식힌事
六、面長金永佑는退職케하고別項面書記兩人은다시留任할事(奉化)

加恩靑年創立

慶北聞慶郡加恩面에서는去五月三十一日午後四時부터冠東講習會第四講堂에서加恩靑年創立總會를開하고諸般事項을決議한後任員을아래와가티選擧하엿다더라
委員長金鍾勳 庶務委員徐永錫 魏代淋 財務委員金永駿 許命九 外交委員李迪石 李起喆(尙州)

河東婦人會 第一回懇談會

慶南河東婦人會에서는去六日午後二時부터河東公普校內에서第一回懇談會를開催하엿는데 出席會員이五十餘名에達하엿스며 臨時議長金秋信孃의司會下에金貫順孃의會務報告를마치고左記事項을決議한後 本報河東支局長趙東縣氏의熱烈한感想談으로一般會員에게만흔覺醒을준後午後六時에閉會하엿다더라
◇決議事項
一、會費는年一圓五十錢式各會員에게徵收할일
一、每月十五日에懇談會를開催할일(河東)

觀衆無慮十萬 張飛士歡迎!

朝鮮人飛行士張德昌君이水上飛行機復興號로統營에서飛行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 同君은去月三十日에來統하야當地後援會의盛大한歡迎을밧고 翌三十一日午後七時에統營靑年會館에서朝鮮人側發起의招待會에臨하야主客의懇談이잇슨후에 飛行機에對한說明과過去經驗談을說明하고 翌六月一日二日은統營埋立地에서飛行을試하엿는데 觀覽者는無慮十萬人이엿고 翌三日午前九時에數萬人의見送裡에麗水方面을向하야飛去하엿다더라(統營)

尙友會創立 尙州有志가

尙州邑內有志諸氏가去六日午後四時에西町洞敎堂內에서尙友會創立總會를開催하고諸般事項을決議하얏다는데 該會의趣旨는地方의發展과心身의修養을目的함이라하며 選擧된任員의氏名은如左하다더라(尙州)
執行委員長 朴正欽 執行委員 朴東和 石主煥 朴正烈 朴然彰 朴寅洙 常務委員 沈潤德 郭侑宗 權泰昱 梁崧鎬 金永球 金東允 石麟輝 徐相烈

奉化各校 學生庭球試合 優勝은乃城普校軍

慶北奉化에서는去五月三十一日에奉化우리俱樂部主催로學生庭球大會를大成學院코—트에서開催하엿는데 參加團體는乃城普校、物野普校等三校가參加하엿는바 定刻前부터雲集한觀衆은無慮數千으로人山人海를이루엇는데 定刻인午前十一時가되매入場式이終了된後奉化우리俱樂部長張輔文氏의簡單한開會辭가有한後 審判의指揮下에競技가始作되야雙方相應한飛躍의形勢로午後三時外지競技를繼續하다가 最後의決勝에至하야終日苦戰의月桂冠은乃城普校에歸하엿는데 審判不公平으로一時紛爭이有하엿스나主催者側에서는公正한態度로優勝旗授與式을마치고無事히閉會하엿다더라

炭疽病蔓延 安州順川地方이太甚 道에서應急策講究

平南安州、順川郡地方에는棉作에炭疽病이發生되야莫大한損害가생겻는데 順川郡殷山面과가튼데는總反別十町步內三町步以上이枯盡되야旣히全滅되엿다는事가九日同地方에出張한道技術員의發見된바 原因은過度한降雨로例年에업는病菌이蔓延된듯하고 棉作栽培에잇서는炭疽病이朝鮮의陸地棉園에서는新來棉에多하다는데 道當局의判明된部分은安州順川二郡에止한것이나 中和、平原、大同各郡의棉作地方에도同樣의被害가不少할터인즉 十日朝以後로부터는道農務課로부터各郡에對하야至急電報로써被害有無及程度等의調査報告方을命하고 一方으로는十一日技術員을各地에派遣하야實地調査를行할터인데 被害가甚하면今年棉作은매우憂慮할바이라더라(平壤)

興京小校의盟休 中國人教員의學生無理毆打로

去五月二十三日에興京縣立第一小學校三四年學生四十餘名은突然同盟休學을하엿다는데 그內容은前記學生이下學時間에校庭內에서蹴球를하는것을中國人孫哲氏監督敎員으로잇는者가無理毆打함으로 同學生으로서憤激하야一齊히同盟休學을한바 校職員諸氏와學父兄諸氏가會合하야先히孫氏로하여금謝罪케하고 學生一同을懇諭한結果로雙方이諒解되어開學日부터上學하엿다더라(興京)

沙屯市에脚戲會

平南德川郡沙屯市에서는市民主催로오는端午에脚戲大會를開催하리라는데 目下모든準備를進行中이라더라(德川)

張飛士歡迎會 義州에서三百圓

義州에서는今般故國을訪問하는飛行士張德昌君을歡迎코자後援會를組織하야大大的歡迎을準備하는中이라함은旣報한바와갓거니와 委員諸氏는準備에奔忙中이라하며 去十四日外지에드러온贊助金도아래와갓다더라(義州)
金尙淵百圓 金炳華五十圓 崔錫夏 金斗衡三十圓 申雲祚 李東燃 金炳鍊二十圓 李璨煥 邊東彥 金志禎十圓 計三百圓

廣城義塾創設 羅氏門中에

教育이우리의生命力의원천임을覺悟하야各地에서向學熱이沸騰되는이때에 成川郡의數百羅氏門中의經營으로教育機關을設置하자고羅榮柱外諸氏가活動中이더니 豫想以外의贊成者가多하야數千圓의工費로校舍를陵中面梁洞里에新築하고生徒外지募集하야教授를開始하엿는데 將來에더욱活動하야基礎를完全히할計劃이라더라(成川)

新島女校의曙光

龍川郡新島面에는于今女學校가無하야遺憾이든바白永暉牧師의周旋으로女學校를創設하고教授에熱中이던바 去二日夕에同地禮拜堂內庭에서男女學生의學藝會를開催하야數百觀衆의大好評을得하는中 特히女學校에七十五圓同情金이나잇섯다더라(龍川)

定州活寫隊來義

各地를巡廻中인定州樂隊教育活動寫眞部一行은去七日에安東縣으로부터來到하야八、九兩日間義州公會堂에서模範될만한寫眞映寫와滋味津津한音樂으로每日滿員의大盛況을이루엇스며아래와가튼同情金도잇섯다더라
沈春桃十圓 義州靑年會 金碧桃 趙文姬各五圓 金蓮花三圓 金蝴蝶 金明得 朴錦玉 韓小波 崔桃紅 金紅蓮各二圓 平壤寫眞館 우리寫眞館各一圓(計四十二圓)(義州)

義州貰繭者希望

義州郡春蠶共同販賣는來二十二日부터開始한다함은旣報한바와갓거니와 繭買受契約希望者는來二十日外지當該蠶業組合에出頭하야入札함이可하다하며保證金은二千圓이라고(義州)

大擴張되는 永生女校 昇格運動開始

咸興에서女子教育界에서第一오란歷史를가진私立永生女學校는加奈陀宣教會의經營으로現今學級이十一이오生徒가四百五十餘名에達하엿스나恒常經費의窘迫으로校舍와設備의不完全함이어도時勢의進運에遲後함으로이 …

端陽運動大會 四日間江陵에서 全關東

江原道江陵郡臨瀛靑年會主催와東亞、朝鮮、時代、每日、開闢、東亞五支局後援下에오는陰五月端午佳節을機會로四日間全關東端陽運動大會를開催한다는데 規定은大槪以下와갓다더라
場所 江陵郡南大川邊運動場
日時 六月二十三日부터六日外지四日間
申請期限 六月二十日外지
競技種目 蹴球、庭球、마라손、自轉車、脚戲
參加金 蹴球一組四圓、庭球一組五十錢、自轉車一人六十錢(江陵)

梧山脚戲大會 陰五月四、五日에

京元線釋王寺驛前梧山市民主催로陰五月四五兩日間에脚戲大會를開催할터이라는데 方今大大的으로準備中이며日時及場所賞品은如左하다고
一、日時 自陰五月四日로至五日外지
一、場所 京元線釋王寺驛前梧山市場運動場
一、賞品 一等一人黃牛一頭 二等一人中牛一頭 三等一人白木二疋 其他等外에도多數賞品이有함(安邊)

洪原救濟會에 同情金續至

咸南洪原饑饉救濟會에追後로同情한金額及氏名은左와如하더라
崔中讓六十圓 康致根四十五圓 李遜鎬二十圓 崔浩儀十五圓 大和田勘彌十圓 康泰元五圓 金杜甸四圓
累計金一千八百十三圓二十五錢(洪原)

松島公園의繁昌 露店도設備

咸南洪原郡州翼面莊東里에잇는三斷島松島公園은咸南에第一될만한名勝地로서 今年에는各地로부터求景오는團體個人이逐日不絕하는中인데 有志諸氏들은그와가튼公園에露店이업는것이遺憾이라하야 莊東里에尹直鉉으로하여금公園內에露店을經營케하고자郡當局에交涉하는中이라하며 尹氏는其準備에매우紛忙中이라더라(洪原)

元山自轉車會 優勝은趙壽萬君

元山輪友俱樂部主催의全朝鮮自轉車競走大會는豫定과가티去六日에開催되엿는데 第一日은豫選戰이엿고 第二日인七日은本競技에入하야午前十時부터擧行하엿는데 觀衆이二千餘人으로大盛況을일우엇스며 當日優勝旗는京城趙壽萬君에게로도라갓다더라(元山)

元山米豆輸出狀況

五月中元山港으로부터米豆賣上地別을示하면如左하다고(單位叺)
日本輸出
玄米 大阪五〇八七 神戶二三七 五、敦賀三〇〇 下關七〇〇〇 舞鶴一五九五 宮津一六九七 合計一九〇五四
白米 大阪三〇 神戶六〇 敦賀二〇〇 下關一六〇 舞鶴四五〇 宮津二九〇〇 合計三八〇〇
大豆 神戶一九三〇 敦賀四七六〇 下關四〇〇 宮津一五〇〇 伏木三〇〇 合計七五四〇
道外搬出
玄米 城津三〇
白米 淸津五〇 城津一二 京城八 往十里二三 合計一〇四 淸津七 洪市四(元山)

洪原救濟會同情金

咸南洪原饑饉救濟會에追後로同情金額及氏名은左와如하다더라
崔浩淑二十圓 崔泰煥 金東鍾十圓 中村雙 朴春彬各十圓 朴顯厚六圓 金敬和 金鳳翼五圓 金鳳允四圓 金秉鉉 李敬明各二圓
累計九百二十四圓二十五錢(洪原)

麻浦靑年會 두가지式擧行 來十四日에

麻浦靑年會에서는來十四日에該會第四週年創立紀念式과會館落成式을同會館에서擧行한다는데 正午十二時에開式하고式이終了한後에는餘興으로三聖峴射亭에서野遊會를開하고脚戲、마라손、體操、西洋管絃樂演奏等이有하리라더라(高陽)

開城收繭豫想 昨年과比等

今年度開城郡內春蠶狀況은桑葉의伸長不良으로多少困難이有하엿스나一般的으로良好하다하며 掃立枚數一百五十枚로收穫豫想高는一百五十石이라하며 前年度에比하면別로大差가無하리라더라(開城)

開城春繭共賣

開城郡今春收穫된春繭共同販賣는來十六日부터同二十八日外지開城郡廳構內에서行한다더라(開城)

農事視察團

開城郡內에在한農事獎勵會主催인開城郡內十六面面長及大地主로組織된南鮮農事視察團一行은開城郡廳朴海洙氏引率下에南鮮各地의農事狀況을視察키爲하야去十日下午七時車로出發하엿는데 歸期는來十五日頃이라더라(開城)

兩校『時』의宣傳

去六月十日에松坡公立普通學校生徒와松坡小學校生徒四百餘名은時의紀念을宣傳키爲하야行列을組織하야各里를巡回하며宣傳『비라』를撒布하엿다더라(松坡)

◇寸鐵◇

【義州】內務局長大塚君은義州에와서엄에準備하야는宴會에兩謝不參하엿다나 理由인즉府生活改善主唱者인關係라고! 黙不還生이라 準備한者만猿猴

【咸興】東部面山陽里卿某가川邊에서銀魚를잡는데 日人巡査部長某는酒期前에銀魚를잡는다고嚴重한取締를하다가 柳氏의答이『이내우에서日人이잡기에나도잡엇소』하니까 그部長無聊而歸하얏다 許多한朝鮮人은이런答을웨못햇던고?

【奉化】奉化에는요사이妓生五六人이몰려왓는데 채자리도完키前에郡醫某는벌써보게見身하얏다 『妓生宰相』이란말을金科玉條로미든모양

【陰城】去七日庭球會當日에는酒井이란日本人이주정을하다가庭球軍의撤退를當하고나서 自手로帽子를破裂하는등가진醜行을하얏다 高貴한紳士로서무슨짓인고 姓不虛得의證明인가

讀者特別無料診療券

主催 朝鮮日報抱川支局
後援 抱川淸和醫院
◇場所 邑里淸和醫院 新邑里同院實費診療所
◇時間 自午前九時至同十二時(邑里) 自午後一時至同五時(新邑里)
◇期限 自六月五日至七月五日
◇診療券 本支局에서交付함 讀者一人에對하야五枚式交付하되一回에限함

期米 十一日

仁川期米 第二報 後場肉迫九圓

阪地四十二圓〇九錢인前止와共히三十八圓九十六錢에頑强히場을止한當市場은後場에入하야 阪地初付四十二圓〇八錢인一丁小落을據하고三十九圓에場을始한바 場面은買氣一層熱狂되야彈力이依然潛在하엿스나 阪地二節一圓九十七錢으로九十四錢外지反落함을受하고三節八十九錢外지下押하더니 阪地四五節四十二圓의同事로結局二圓〇一錢에止함을竟하고 六節九十五錢으로一錢에場을止하니 同低의差는十一丁이며阪仁의鞘는三百十丁이더라

大阪場況 十一日後場

今後場阪地場況은弱氣喰을急히하야四十二圓〇八錢으로一丁低價로되 一圓九十四錢外지下押하엿다가 綿絲筋의賣進으로四十二圓外지返戾하야手詰의賣拮据하다가 結局〇一錢에大引하엿다고

◇各地止價◇ 十一日後止

	十一日後止	昨止比較
大阪	四二、〇一	一四高
東京	四二、九九	二〇高
兵庫	四一、四六	二八高
下關	四二、二〇	四一高
桑名夕後	四一、九二	七高
名古屋	四一、九五	一五低
金澤	四一、九〇	一〇高
熊本	四一、四〇	二〇高
	四一、九一	一九高
仁川	三八、九一	二六高

◇阪仁氣配◇

大阪 一、二錢高
仁川 三十八圓九十二三錢

◇各限保合◇ 十一日後場

當限(計 二、九〇〇石)
▲賣方 [illegible]
中限(計 一三、一〇〇石)
▲買方 [illegible]
▲賣方 [illegible]
先限(計 二六、七〇〇石)
▲買方 [illegible]
▲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蠶繭共販을 高原에서도反對
전군농민의리익을무시하고 일개일인의사복을채인다고
郡當局者를一般이致疑

고원군(高原郡)에는일년에수확되는 잠견(蠶繭)이 륙백여석 이상에달하는데 일반농민들은 여름한철에는 부업으로양잠에 힘을써 여긔서수입되는것을 그한철에량식을삼는것인바양잠에서정컨경제공황에 엇절줄을 모르는터인데 따라서잠견판매가 잘못되이 좃치못한해에는 일반군민이야손해를밧는다하면그야말로자긔생명을 쎄앗긴것과 다름이업는터인데이 것을번연히아는

군당국자 들은무슨정책인지모르나일개일본인에게독당판매케하야 작년가튼해에는 잠견한말에이삼원식손해를맛게하고또다시금년에도일개일본인에게지뎡판매를하도록계약하겟다고하엿다는말을 듯는군민들은더욱히분개하야공동판매를반대하기로 군민대회에서 구든결의를한일도잇스나

군당국자 는강경한태도를취하야 농민의리해관계는 전연무시하고 낙시애 맛기와가티판매당시에 일능에 엽서된자에게는 소한마리를준다는등 수단을부려가지고 일개인에 사복을채우게하는것은 무슨 까닭이잇는것이라고 농민은 날이갈사록 의심을품게되며 따라서극력반대하려라는데 이군민대회 집행위원들은 일반군민의 리익을

일개인의 사복을채우게 함은 천만부당할뿐아니라 이번공동판매는 우리고원농민의생사에관계가잇는큰문데이라하야 잠견공동판매를절대반대하고자 할뿐아니라 어듸까지 렬더히그 흑막을료사하도록힘쓸터이라고 하더라(고원)

小作爭議判決
구작인이승리
디주가코를쎄다

전남순텬군(順天郡)디주중에말을만이듯는바승직(朴勝稷)은광양군골약면(光陽郡骨若面)에잇는토디너말락을 그곳사는 강일명(姜日永)이라는사람에게소작계약을하야주어서 년년히 실수업시 도조를바더왓슴으로 불구하고 리재홍(李在洪)이라는자에게 소작권을 옴기어주엇슴으로 소작권을쎄앗긴강일영은그사유를들어광주디방법원

순텬지텽 에신작인을피고로하야소송을뎨긔하엿더니지난일일에 공판이열리엇는데 정원(井原)판사의담임으로사실심문이잇슨후에 증인으로 박승직을불러서 디주의잘못을 낫낫치말하고 또는디주로서 논을떼이라면 소작인에게도 가진수속을다하여야 소작권이 비로소뎡긔인데 박디주는 소작인을무시하고

소작해제 통지도업시또 디주의맘내로 논을옴기인것은 매우부당함이니 이후로는 래년소작을옴기라면 금년부터 소작해제통지를발부하고 또는 구소작에게 승락을구한후에 논을이동하는것이 뎡법한일이니 옴긴논은 전과가티 구작인이짓게하고 디주로부터 모든수속을 구작인에게다마친후에

명년농사 는리가에게주는것이 맛당한것이라한즉 디주는 썬썬한 얼굴을들고 려가지고 변명을 하고 자긔의 고집을 세우려고 애를쓰나 할수업시 범뎡을나왓는데 검하야 신구작인은 디주를대하야 그대의잘못으로 우리의 손해가 이가득 어서속히 불량한습관을바리어야 우리불상한 소작인도좀살겟다고 가진질책을 한바 디주는 얼골이 뜨겁고 붉어서감히얼골을 들수가 업시 되얏다더라

百萬圓의損害賠償
암모니아제조특허권침해로

일본대판(大阪)시내 북옥강뎡(北玉江町)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資金二千萬圓)을상대로신호해안통(神戶海岸通)구로ー드』식질소공업주식회사(窒素工業株式會社)(資金千五百萬圓)에서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데백만긔할터이라는바재계에파문을일으킬터이라는데 그내용을 대개드르면 대정칠년에 불란서(佛蘭西)에서발명한구로ー드식암모니아합성법의 특허권을 령목상뎜(鈴木商店)이 삿든바 동십일년에일컨백구십만원에전긔원고인회사에서 사가지고 공장을설치하고 제조하는터인데 전긔피고인 회사에서 그와꼭가튼것을제조하는바 특허권 침해라하야 그와가티소송을 하랴하는것이라더라(대판뎐보)

瀆職巡査處刑
징역일년에

청진경찰서(淸津警察署) 포항동(浦項洞)주재소에 근무하든순사홍순형(洪淳衡)은사오년전부터 순사로근무하는것을 호긔로삼아 시내신암동(新岩洞)포항동등디에산재한선중인(鮮中人)중 정식범규에다소귀속된 사람들직긔집으로 도다러다가얼마간씩용하는형식으로만흔금권을편취한사실이발각된바더욱중국인에게는 아편을빌붙메식힌죄로 지난팔일 청진디방법원에서 징역일년에 언도가잇섯다더라(청진)

安岳署員被訴
무리히인민치고

황해도안악군(黃海道安岳郡)대원면가양리(大遠面可陽里)이백구십오번디에잇는 리한성(李漢誠)은안악경찰서에 근무하는순사리선주(李善周)를거러상해죄로 해주디방법원 재령(載寧)지텽에 고소를뎨긔하엿다는데그자세한 말을듯건데 한동리에잇는한청의동생한옥(漢玉)의집에서 음력금월초구일에 절도의해를입어 사방으로 탐문하든중리웃집에잇는리춘하(李春夏)의집에 일헛든지갑과 표적이잇슴을발견하고 여러사람의 말청이이러나자 리춘하의 친족이왈고말하기를 피차에 한동리에사는처지에 친한사이에 그가티 소란할이조치안으니 차용증서를밧고 일후피해금액을 바듬이 조타고하매결국 그리하라고 승락하엿든바리춘하는 몰연히무고로 안악경찰서에 고소를한다고 드러감으로 분함을참고잇든리한옥(李漢玉)은곳본면주재소에 고발하매곳경도자인 리춘하를 구금하고취됴중인데 엇전일인지 지난음력십팔일에 몰연히 김을매고잇는리한성을 안악 경찰서에서 근하는리주선이과하는순사가네가 충동하엿다는 알수업는말을 우룸주먹하며 무리히구타하여 노로는 고소를하략 노동 장편으로 올근시한례도통상으로침수업시 상처를동여매고 자동차에 몸을싯고곳재녕읍 금자공의(金子公醫)에게이주일의진단을바다 상해죄로고소하엿다더라(재녕)

羅州貧民調査
共築會와面所
협동하야활동중

라주노동공제회사(羅州勞働共濟社)에서는라주면내면의괴근상래를조사하기위하야지난팔일부터라주면사무소(面事務所)와협동하야 각빈민들을 차자단이면서 세밀히료사한다는데 위선료사해낸것이백여명에달한바그네들은 더욱히 농촌빈민과도달러농사도 지어노흔것이 업서압흐로 보리가날지라도 여전히굶게될 그들이라하며 오는십삼일부터는 간부일동이 총출동하야호별방문으로료사한후에는이에대한 선후책도 강구하리라더라(라주)

仁勞委員會
뎡긔총회준비

인천로동총동맹회(仁川勞働總同盟會)에서는지나간십일일오후아홉시부터 화평리(花平里) 본회관에서 위원회를 열고림시의장권오설(權五高)씨사회로뎡긔총회는 상이일 오후팔시부터내리(內里)예배당에개최하기로한후 회계검사(會計檢査)문뎨에대한것과회인람용(會印濫用)문뎨에대한의안은 인천로총부규사건의

중심문뎨 인데위원회석상에서는 도저히 원만한해결을구할수업슴으로 오는총회에 사회정한판난을 구하자는 의장의설명이잇스며 따러서 위원중으로서도 한동의 이의가 업시총회의안에부치기로 하엿고 그다음에는동시에 조직데가 개인의입회와단데의 가맹으로혼성되야 그의로서 모순되는 조직인측련압데로 변경하는것이 가하다는결논동시에 개인회원은 엇더한형식을발버서 별도히조합을 조직하야 로총에가맹하·로 하엿스며견하야 규정을 변경할필요가잇슴으로

잇슴으로 규측수정위원을선정하야 곳수정하기로 하엿고 개인회원의 조합조직에 대한것까지수정위원에게 일임 하기로한후폐회하엿는데 써는 십일시경이엇스며 규측수정 위원은아래와갓더라(인천)

金台鉄、李承燁、權五高

日本人의遊廓을 爆發藥으로破壞?
일본인과조선로동자충돌로 공긔가험악한일본화가산현

일본 화가산현신궁뎡(和歌山縣新宮町)매본상언(梅木常彥)의초대로십일오후세시경에 음식을먹고잇든조선로동자수명은그부근유곽(遊廓)으로놀러다니는 일본인의한패와 충돌되여 일본인복부구삼랑(服部久三郎)이를흉신두다려주엇슴으로이광경을본일본인들은크게노하야뎜에뒤머리를부상하고또한명은손을부상하고말엇슴으로신궁경찰서에서는수십명의경관이 출동하야엄중취됴중인데이소식을드른그곳조선인로동자사십여명은「폭발약으로 부도(淳島)유곽전부를파괴하여버리겟다」고 그긔세가대단함으로신궁경찰서에서는크게경계하는중이며일본인들도 의용대를 조직하고 칼을가지고 대항경계한다는데 십일일에도 경찰의경계가대단하엿다한다(화가산뎐보)

朝鮮人義州
破滅되는四面觀(二)
甚酷한差別
記者 새벽별
商權은外國人에게로

새주인을맛는 의주는 녯일음이잇는것만치 새주인에게도 평북의수부라는 일음을 엇게되엿다 수부(首府)라는일음을엇는동시에도령、군령、헌병대、수비대、경찰부、관령이라는관령은 모조리모아다노핫다 그럼으로 유식시민과 유식관리배가만허저서 자연히 식료품을주모한 상업이흥왕하엿다재주집이 늘엇다기생집술집이 늘엇다과연의주는화류장이요 음식관매시가(飮食販賣市街)이엇다

그럼으로 로동자도다소간생활에여유가잇게되엿스며더욱빈한 한사람들도 소자본으로음식장사등을 함으로 의식에과히라격을밧지 아혓다그러나상권은 그식료품장사이나마 일본인외국인에게예앗기고점점구남교(淸南橋)동부동디로몰려가게되고 시주의전권은 외국인에 쥐이게되엿다 이외가려여디가업는조선사람에게는도렴권이나렷다도령(道廳)이 신의주로 이뎐하게됨을따라

관령이란 관령은 다따라가 버리매 유식 관리배들의그림자 조차 보지못하게 되엿다 유식관리로인하야 술잔이나팔아서 생활하든 것조차다못하여먹게되야 시민은산산히 헤여지게되엿다 변변치안흔 상업에 와지대라격을 바더마저 상뎜은 비인허령간가격 컴컴하게 텡텡 벼엿다 그런어상에 조선놈어런 조선놈은외국 물화숭배 열이심하야

조선놈의 상뎜에는죽기를내기하고 한푼어처 아니사되일본인이나 중국인 상뎜에가서는가진학대를 바드면서도 사기를조화하야 푼푼 전권의피염홍편노흘 전부외국인에게만 주게됨으로도 자연히 따라서빈약하야젓다 상업이 미약하야 젓다 상업은 파멸을 당하엿스니다시말할바 업거니와 의주의조선인과 일본인차별로인하야

조선인의 생활는자연이더욱 파멸을당하게되엿다 이제차별도인하야 의주조선인의 경제라격밧는몃가지를들어말하고저한다

의주면(義州面)제일으로되간이수도를 설치하야 의주시민에게음료수를 공급하게된것은 이미세상이 다아는바이나 그수도에대하야 기픈불평이 잇는것은아즉세상이모르는것이다

무리한것 은수도음료금증수이다 의주에 일개월 이상뉴숙하는자에게는수모를물론하고수도료를밧는것이다 수도라는것이 시민이 그룹을사용하든지아니하든지 또한수도료를밧는것이다 그것도수도동을 설시하야면 수도료를밧더도 그여무괴이나 수도동은 일만여의시민중에 물과십사개소뿐이다 그것까지일본촌에만설치한것이다

釋校紛糾의餘波
학생한명을출학

금년봄이래로안변군사립석왕사학교(安邊郡私立釋王寺學校)에 분규가생겨 일시란마상태에잇다가 이사건이 해결되엿다함은 이미보도하엿거니와 요사이 안변군학무당국에서 돌연히 학교당국에게 공문이오기를 동교륙학년생함흥구(咸興求)(二九)는분규의 주모자로 료사하엿스니 이러한 불온한생도를 그대로두면 안변교육계에 막대한악영향이 밋츨것이니 퇴학처분을하라고 재삼공문이잇슬뿐만아니라 절머의 간섭함으로 학교당국에서는 그간섭에 부득이하야결국퇴학처분을하엿다고하더라(안변)

請負者不注意로
십리들의농사가 랑패될모양이다

평남순텬군선소면 장선강 연안(平南順川郡仙沼面長鮮江沿岸)도홍리(桃興里)로 부터 오천리(梧泉里)까지의십리들에대한관개공사(灌漑工事)는 청부자측(請負者側)의 부주의로 천여명디주들이 문뎨를 이르킨다는데 그내용을 듯건대 도홍리에잇는김병호(金炳鎬)가당디천여디주를 대표하야평북(平北)에 유수한자산가인 문모오모(文某吳某)두사람에게관개공사에대한청부계약을 체결하야 주어작년구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야우금칠개월동안에일만칠천여원의거액을 드리어 거의준공이되겟스나 그와가티큰들에 파종(播種)시긔를놋치게되얏슴으로 권여디주들은 일대 공황을늣기는동시에 전긔김병호는 그런책임을맛하가지고 그와가티 부수의 한 잘못이잇다고 문뎨가일어난것이라더라(순천)

仁川講演延期
오는이십일일로

인천영명학원(仁川永明學院)주최의인천교육대강연회(仁川教育大講演會)를 오는십삼、사량일간 인천공회당에서 개최하리라함은 이미보도한바와 갓거니와연사、장소관계로 부득이오는이십일일로 연긔하엿는데 자세한것은 추후발표 하리라더라(인천)

沃溝의三千窮民
늙은부모와처자로가티 문압마다다니며밥을빈다

작년의 모진한재의여독으로 말미암어 우리의유일의 재산이며 유일한 생명이되는 농작물이흉년이들어 먹으라도 먹을것이업고 입으라도입을것이업는 무산농민들의 참상을 볼때에어느사람이 동정의눈물을 흘리지아니하리오 수업는중 전북옥구군(沃溝郡)은 비교뎍한재가 심하지안혓다는곳이라하나 요사이에 이르러서는 농촌의생활상태가

날로궁항 예상하엿든바아니라 전옥구군(全沃溝郡)을통하야 삼천이넘는 궁민이잇다는데 라포(羅浦)、서수(瑞穗) 성산(聖山)세면이그의반수이상을 점령하게되얏는바 이세면가운데에도라포면(羅浦面)은 전해수확이업섯다고하여도 파언이아닐만큼된 곳이데 더개그의상항은 엇더한가

어린처자 를다리고벼마다 직의논을붓치며 근근히 생활을하든 그네들은 갑작이 그러한 흉년을맛나고보니 백방으로 생각하여도 엇지할도리가업서 그네들은할수업시 어린처자를 압세우고 남의문권에가서「밥한술주시오」우름반밝반되는소리로「사람좀살려주시오」하게되야 요사이에 조석(朝夕)여가되면 문권에와서

사람살려 주시오하는사람이 십여인식 등쳐새가업시부르짓는데 그들은 봉두란발로엽꿀에는 늙은부모를이고 이집저집으로다니는중 그들의 참상은 참아볼수가업슬뿐아니라붓으로 그형상을 쓰자하야도 눈물이압흘가리어참아긔록할수업더라(옥구)

平壤給水에
취데가곤난

평양부에서는 공설공용(公設共用)의급수방법이 변경된후 수요자공급자(需要者供給者)가 한가지로 물선한사정에 쇠지는 모양인데 일본이래로 사설공용권(私設公用栓)과 전용권(專用栓)신설공사신입(申込)이 증가되는 경향이잇슴으로더러 리웃에 잇는 사설공용권에서 비러오는 것과전용권에서 도정하는 의람분여(濫用分與)가 심하여 가는데 이에대하야 징계하는바법으로는급수뎡지(給水停止)손해배상(損害賠償)과료(科料)등이잇는데 이로부터 급수취데는 조혼도리를발견하기 가곤난하겟더라(평양)

群山에越墻强盜
지난칠일새벽에
뎟구두를버리고도망

지난칠일새벽의 군산 장재동칠십칠번디 김종동(金鍾東)의집에는 강도가담을넘어서 돌어왓다가 목덕을바드라는 큰소리에 놀라서 목덕을 달치못하고 도망하엿는바람에 뎟구두를 떠러트리고다시며 넘어서 도망을 하얏다는데그날아츰에 이말을듯는 경관은사실을 료사하고 뎟구두를증거품으로 범인을수색중이나 아직발견치못하얏다더라(군산)

日本人訓導가 柔道로學生毆打
혼도하야오줌눌싸도록따려
이튿날부터학생은동맹휴학

지난삼일 오후삼시경에 충남론산군양촌공립보통학교(忠南論山郡陽村公立普通學校) 오학년담임훈도 송미수웅(松尾秀雄)(三五)이란자는 자긔가 마든반학생들이 하학한뒤에 교실소제(掃除)하는것을 살피든차에소제하든학생중에리중식(李仲植)(一五)이라는 생도가 교실에노하잇는풍금(風琴)에다가 배를걸치고잇는것을보고 아모말도업시 그냥달여들며 목덜미를처서 잡바트리라고하매 학생은 항거하야잡바지지아니하엿더니 그만성을내며 평시부터 자랑하든유도(柔道)로어린학생을교실마루바닥에다 가사정업시메붓치고도오히려 부족하든지 발길로차서 학생은혼도되야 오좀까지 쌋다는데 이 사실을들은 일반학생과 학부형들은물론이요일반인사들도크게분개한다더라

結束하야 訓導排斥
갈어주어야겟소

론산군양촌 공립보통학교 오학년담임훈도 송미수웅이가 자긔가따른 오학년생의중어떤 생도를 구타한사실은 면향보도와갓거니와 오학년일동은 이몰도뎡하고 학교에 가지 안는다는데 그자세한사실을듯건데송미훈도는 그권부터교수시간에 드러오면 학과는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긔 볼 책이나 읽든지 그러치아니하면 편지나 쓰든지 하면서 학생이「선생님 좀 자세히 가르처주세요」하고간청하면 도리혀 오히려 꾸짓고 물리치며 또는조곰만잘못해도 사정업시 막우따림으로 무서워서 배울수가업스니 다른선생으로 밧구어주지 아니하면 학교에단닐수업다고 교장에게요구한다더라

學父兄들은
事實掩蔽를憤慨
아즉은방관뿐

사일부터 오학년생일동이 동맹휴학을 단행하매 일반학부형사이에도 여러가지로 의론이분분하든바 일을온건히 처리하기위하야 각각자질들을불러서 말하기를 사실은 분개할일이나 학생으로서 너머강경히 하는것은 필수업스니 공부를 계속하면 부형들이 학교당국에 교섭하야 일반의 요구를드러주도록 하겟다고일렀스나 작일오후에는 대표 한시간을하여다경한데도록가서는도리혀며우강경한태도를가지고 오학년반학생은 업서도조라고하랴고 자기후 명일시위 협하고 부형측의 미하야는사실을 유혀하라고함으로 학생들은 지난팔일에 다시 엇던산중에서 비밀히모히여끗까지대항하기로 결속하엿스며 학부형들도 분개하는중아즉은방관하는도로잇다더라

要求는正當하나
위신관계로 못들어주겟소

이일에대하야 수석훈도 정도성(鄭道成)씨는말하되그당시에학생이맛는것을보지못하엿스니마첫는지 아니마첫는지 자긔는자세히알수업스며학생의요구하는 조건만은정당하다고인뎡하나학생들의행동이너머불온함으로학교의위신으로보든지뒤人일을경게하기위하야서라도학생들의요구는 드러줄수업다고하더라(강경)

三百餘勞働者
賃金問題로盟罷
最後의勝利를엇고復業
井邑不湖에서發生한일
로동자가집중된읍엿보고 삭전을나리다가결국실패

지난사월에 전북정읍군 회호리(全北井邑郡不湖里)에서는님금문뎨(賃銀問題)로삼백여명의로동자가 동맹파업을한바 본리주재소(本里駐在所)는물론이오김뎨군부량면 주재소(金堤郡扶梁面駐在所)와부안군백산면 주재소(扶安郡白山面駐在所)에경관까지

총출동을 하얏스며파업의긔세가 일시에는 매우긴장하야공긔가 자못불안하든중에 필경자본가(資本家)측에서양보한결과로 원만히해결이 되얏다는데 그자세한말을듯건대 당디는 원래농촌(農村)임으로 이종긔(移植期)에는다수한로동자가집중되는바 로동자가 만흔것을엿보든자본가(資本家)들은작년보다도

무리하게 삭을나리고만 약정한 삭대로 일을아니하면 로동자를 타처에서사다가 일을식히겟다는 위협뎍으로 당디로동친목회(當地勞働親睦會)에서는림시총회를 열고우리들은 그무리하게 나린삭을밧고는 일을할수업다는 의미하에서 세며먹고 이십전하든것을 삼십전으로 할일과아니먹고륙십전 하든것을 닥배와한배에 먹고칠십전으로할일을 결의한후 자본가측에 교섭한바 자본가들은절대로 불응하겟다함으로드되여 지난사일부터 동맹파업을 단행하야 림금문뎨에는 사람의그림자도 업섯는데개인 경영인웅본농장(熊本農場)에서는김뎨군부량면신두리(金堤郡扶梁面新頭里)에사는 농장사용인김영식(金榮植)이란자를쓰고 일군불때

륙십여명 을다리고오든중에 일백여명은 파업한일군을 동정하는마음으로 바로도라가고 륙십여명만 들네나와 놀을 하든바파업을 단행한 삼백여명의군중은 이를분개히 역이여그들의 몰아가는길에 삭사십명식 예를지어가지고 기다리고 잇든바당디주재소(當地駐在所)원들은장차큰소동이일어날가염려하야로동친목회(勞働親睦會)에교섭하야 오날신두리일군

륙십여명 은래일부터는 일을아니하게할터이니 싸홈만말어달라고 간권함으로 륙십여명은 방을타서도 세는 심상치아니하든바 자본가들은 쎄다름이 잇든지지난륙일에 로동친목회의 요구대로모다하야주엇슴으로륙일부터다시 일을하게 되얏는데 일시에는근동(近洞)의 공긔가매우 흉분되얏엇다더라(화호)

高興은廢農地境
肥料에對한恐慌으로
이제는죽는수밧게는업다고

전남고흥군(全南高興郡)천부는 매년이예이면 동군금산면(錦山面)에가서 칡초(折草)하야 이로써논에 비료를삼는바 금년에도 전례에의지하야각면으로부터수백명의초군(樵軍)이드러가서 십여일동안 수백집의 풀을베허운반하려할지음에 돌연히 보군삼림계원리갑선(李甲善)(二一)이가 명의하에 풀버린부 압수하야두고풍남(豊南)금산(錦山)주재소에속탁하야 일절금지함으로 앗기사람들은 어러날 헛수고만 할뿐아니라 농가에 사활문뎨이라고분한 눈물로 도라가서금년에는 농사를지을수업스니 이제는할수업시죽는수밧게는도리가업다고호읍하다더라(벌교)

橫領犯日本人
징역이년에불복

충북 음성군 음성면읍내리(忠北陰城郡陰城面邑內里)에현주소를둔일본인 뎐중국치(田中國治)(四)는 사년전부터음성군학교비 사무원(學校費事務員)으로드러가 금전출납계(金錢出納係)와 금전보관계(金錢保管係)에잇는것을 긔화로녁이고음성공보통학교 학부형후원회(學父兄後援會)에서 학교비 품비(備品費)로 맛긴 현금백십오원을 횡령하여쓴것을 시작하야 학생에게 바든 수업료(授業料)에서 버린 천여원을 유흥(遊興)에서써 버린후다시 작년십이월 경에는충북지사(忠北知事)에게서 학교로 부친돈 천원이잇는것을 알고당군수(郡守)의 거짓위임장을 만드러가지고 괴처사에업무(業務)횡령(橫領)긔문서위조(文書僞造)등사건으로지나간삼월에 청주디방법원(淸州地方法院)에서징역이년에판결을밧고즉시경성복심법원에공소를뎨긔하엿다더라(음성)

培材對미나도野球戰
十二日午後三時부터 仁川山根町公設球場
後援 朝鮮日報社仁川支局

洪城對湖銀
圓滿解決
저금사만사천 여원을차젓다

이미보도한바와가티홍성교육회총회는 원만히 진행되고회원은 예금과증서는 여원륙십삼명에게 일임한바와가티 월요일오전열한시삼십분에홍성으로출두하야 저금사만삼천원과 수후차용하려던증서전부를소멸하고오후세시에여원회는폐회하얏다더라(홍성)

進行汽車에서
녀자가뛰여나려

지난구일 오후십시팔분에 김뎨역(金堤驛)을떠나는남선급행차가김뎨역을 떠나기시작하야 속력이 차차빨러저가는데 엇더한 녀자가 차에서뛰어저 잡바짐으로일반은 현장을가서보즉 인사불청이되얏다가 차차 정신을차리엇는데 중상을당하얏는데는 업섯고그자세한 내용을들으면 현주소는군산둔밤리(群山屯栗里)에 송수동(宋壽東)(三四)과그의뉘 송성녀(宋姓女)(三六)가군산을가랴고김뎨역에서 차표를 사랴고하는바 일뎡한긔차시간의 출발시간은 벌서 긔적을 울리게되엇는바 역부는나종에 뎐화를하여줄터이니 올나타라고함으로 막을의자자긔동생 수동이가 타지아니함으로 그대로 뛰여나리다가 그와가티되엿다더라(김뎨)

晋州火災
전소사호 반소이호

진주디방에는 근일에 일긔가대단히부조(不調)할뿐아니라감음(旱魃)이 련일 계속하고난데업는바람이 몹시 불든지난팔일오전열시쯤되야 진주성외 평안동삼백이십이번디(晋州城外平安洞三二二番地)김영섭(金永燮)뎐당포(典當舖)후원(後園)에소나무섭(松薪)만히차두엇던산더미가튼무덕이에서불이나서일시는대소동을 이루엇는바 진주소방대와 청년회원(靑年會員)다수가극력진화(極力鎭火)하야다행히전소(全燒)가 사호(四戶)반소(半燒)가 이호에 그치고열두시경에 겨우다쇠게되얏는바 불난원인은아즉알수업스나아마어린아이들의 실화인듯하고손해(損害)는아즉알수업다는데 일만오천원이상에 달하리라하며 진주에서 뎨일무산자(無産者)가다수히모혀사는평안동에 더구나 이번의 피해자도무산자가 대부분이되야 다행이몸은살엇스나 의식주(衣食住)의 근거를 다태여버리고 애소(哀訴)하는모양은 실로처참(悽慘)하엿다고(진주)

平安洞 朴台弘全燒 同金良仁全燒 同金鎭壽全燒 同曹德志全燒 同金永燮半燒

配達잘못하고
빵을마져다

지난팔일오후세시경에 경남김해군생림면 봉림리(慶南金海郡生林面鳳林里)리발소(理髮所)압에서 그디방에서거주하는 김종환(金鍾換)이가 삼랑진우편소 배달부(三浪鎭郵便所配達夫)신귀원(申貴元)이를 발길로 차고빵을 떠렷다는데 그자세한 내용을듯건데 량산군 상서면증산리(梁山郡上西面甑山里) 홍판출(洪判出)로부터 전긔김종환에게오는편지를 그곳리발영업 하는김유종(金有宗)의집에 두고간 것을리발소에 놀고잇든박유실(朴有實)이가 떼여보앗는바우편물을중간에전하야그와가티되엿다고배달부를 그가티 따린것이라더라(진영)

江界에
牛疫猖獗
삼천두가죽고
삼이두가병중

강계군립관면창평리(江界郡立館面倉坪里)에는지난오월이십일부터 우역(牛疫)이 발생되여지난일일까지의 죽은소가 열일곱마리이오 지금병에 걸린소가열두마리나되는다수에 이르럿슴으로면천경찰서(前川警察署)에서는 일변예방에 노력하는동시에우마(牛馬)의 교통까지 금지한다더라(강계)

石魚價請求訴
오십칠명을거러

고양군룡강면토뎡리(高陽郡龍江面土亭里)삼십칠번디에 사는 김정호(金政鎬)는 전부터 생선장사를하여오든터인데 작년 륙월이후경성과고양(高陽)일폭오십여곳에굴비(乾石首魚)를외상으로주고 갑지발든것이 칠백여원이넘는다하야 외상먹고 갑잔지안는다는 리유로 고양군룡강면동막리(高陽郡龍江面東幕里)삼백륙십삼번디박세현(朴世鉉)외의 오십칠명이나 되는 만흔사람을 거러서 경성디방법원에 굴비갑 청구소송을 수일전에 뎨긔하엿는바 그법원에서는사실을심리하는중이라고

奸婦가本妻謀殺
사실이발각되야테포

전남장성군 북상면 덕재리(長城郡北上面德在里)주상영업하는최치옥(崔致玉)의맛딸 금례(今禮)(二〇)란녀자는당디경찰서에서 엄중한취됴를밧는중이라는데 그내용을들은바금례는몃해전에 장성읍 리희구(李喜九)에게시집을 갓다가 살지못하고자긔친가인그덕재리에와서잇는바작년부터 그마을 곽문영(郭玟榮)과 정을통하야 남몰으게지내다가 차차말이나기시작하야 동리사람들이 모다알게되얏스나 곽씨는데면을 봄이든지 생활이곤난함이엿든지 금례를친가에 머물러두엇든바 곽씨의 부인 증씨가운데 큰마누라를 업새바렷스면 곽씨와 직접간찰을구하야살한가뎡을 일우리라는 생각이나서지난삼월에는전긔곽씨의집에사람이업는틈을타서 곽씨의 큰마누라가먹는불동부에 양잿물을탓든사실이 발각되야 곽씨의삼촌되는곽한풍(郭漢豐)씨와금례의친가에서는그사실을극력으로무더두엇스나 드디여 소관주재소에알게되야 됴사한결과 금례는자백함으로즉시경찰서로압송되야방금취됴를밧는중이라더라(장성)

고랑채운
窃盜逃走
잠복중에
필경은잡앗다

진남포(鎭南浦)경찰서(警察署)에서는 지난구일 오전다섯시쯤되여시외신마사리(新麻沙里)오번디칠호에사는 홍긔락(洪基洛)의집에서 행동이수상한고두환(高斗煥)(二五)을절도범의혐의자로데포하여다가손에고랑을채우고허리에 포승을묵근채로동서사법실기동에 매여노코 계원의출근(出勤)을 기다려취됴(取調)코저하든중 동여뎔시에범인은교묘히계원의 엄밀한시선을피하야허리에 매엿든포승을 끈허버리고손에고랑을 채운채로 동서뒤人문을 발길로 차넘어트리고 어디로 종적을 감추어버렷슴으로 동서에서는 몰연히 긴설원을 비상히 소집하야 긴시에비상선을느려노코 엄중히 수색하든중 동범인이 차고잇든고랑은 룡정리(龍井里)누신한교변소엽헤서 등교(登校)하든 동교학생들이발견하야 남포경찰서로 가저가고도범인이 자긔가 긔숙하고잇든시외신마사리(新麻沙里)홍긔락(洪基洛)의 집에이르러「아는순사가 잇서서 풀니다부사히되엿노라」고 하면서그집에걸어두엇든두루막을 입고 태연히주인과작별한후 다시어데로 종적을 감추엇스나 권서원(全錫元)의총(總)동원으로그수사(搜査)에노력하야동날오후팔시경에범인니 교묘하게 비상선(非常線)을 늘파하고동정리(東井里) 양주、양조업자중뎐군삼랑(中川紋三郞)의누룩(麴子)창고에 잠복하야잇는것을 발견하고 한참동안에서로 격투한후에테포되엿는데、그는 진남포시내와 시외(市外)로다니면서전후십여차려나 절도질을 한자로엄중취됴를진행중이라더라(진남포)

漆谷雹災調査
손해이만여원

경북칠곡군(漆谷郡)에는일전에 우박이만히왓다함은긔보한바어니와그뒤군령에서됴사한결과가산면(架山面)、판내신창、섬곡(新洞、井谷)두동리 농작물 손해만으로도 머락이만여원이나 된다는데 작년한재로 굶주리든농민들은뜻밧게 보리까지 참혹한재해를입어 먹을것이 업게되얏슴으로 인심이 흉흉할뿐아니라 영을처고하늘을누르는짓는사람이만타더라(칠곡)

휘파람

▲태인읍내몰창리에서보면일등도로좌편으로굉장한신축공사를하는데부근송경지(松境址)에제와공장을두고목재와석재를실흔우마차는 련속불절한다 ▲건물의 내용을 듯건대 그집은 아홉채(九棟)간수는 팔십여간의 예산이라고하며▲그집 주인은 강증산(姜甑山)을신앙하는 만여인인의교도를 가젓다는 정읍군감곡면반룡리(井邑郡甘谷面盤龍里)조철제(趙哲濟)이라는태을교주라고한다차경석파사이에 가엇더한지쟁이나아니날가?

◇正誤 本月四日本報朝刊第二面『德營軍前萬歲』라는記事中『朝鮮獨立』四字는誤記이기訂正함(소州)

市井雜事

◇無斷出家不歸 시내현저동(峴底洞)사십오번디의 묵심호에사는김성진(金聲振)(五二)은지난달이십일일에 무단히 집을나간후 도라오지아니함으로혹친척의집에간줄로 알앗더니 벌서수십일 이되도록 소식이업슴으로 그의아들되는김춘화(金春和)로부터소관서에수색원을뎨출하엿는데 근본가뎡에 다소의불화가잇섯슴으로 혹그것을 비관하고불의의일을 행한지도 모르겟다고

◇門內에棄兒 시내 공평동(公平洞)사십칠번디 위경섭(魏京燮)의집에는팔일령방 열한시경에나흔지 석달가량되는 사내아이한명을버리고간자가 잇섯는데 그원인은 필경생활난인듯하며 아이는위씨가 기르기로 하엿다고

◇류리창에머리負傷 시내욱뎡(旭町)일뎡목칠십사번디강계선(姜桂善)(二八)은지난일일오후한시사십분경에 자면거를타고 욱뎡일뎡목 이백이번디 압길을통과하다가 부근에잇는 빈집류리창에 머리를부되쳐서 머리와목에 중상을당하엿스나 출혈이만히되어 인사불청에 세첫섯다는데 즉시장곡천뎡(長谷川町) 안등병원(安藤病院)에서응급치료를바든결과생명에는관계업스리라고

堤川小火

지난팔일오후네시십분경에 충북 뎨천군읍내(忠北堤川郡邑內一八一番地 韓順化)의집 처마로부터 불이일어낫섯는데 소방조의 총출동으로 동시오십분경에 진화하엿고 손해는약삼십원에 달하얏다고(뎨천)

慶北自働運手
매월십삼일마다
시험을보게된다

원래자동차운뎐수의 면허만긔(免許滿期)가한나 오개년인바지난오월이십일간에 경상북도에서 현재면허장을가진일백이십팔명의 운뎐수는 명년륙월에 만긔가되는동시에 다시시험을보고 면허를 밧지안으면아니될형편인바 일시에시험을본다고하면 교통상 막대한영향이잇겟슴으로 미리래월십일부터 매월십일에 운뎐수시험을경북경찰부보안과(保安課)에서뵈이리라더라(대구)

南浦築港에서
少年一名溺死
발이미끄러저서

진남포부내 후포리(鎭南浦府內後浦里)삼십륙번디 로동자최경환(崔敬煥)의차남 홍성(洪星)(六)은지난구일 오후령시반쯤되야 입항중인 남양환(南洋丸)에서로동하는 자긔의형을맛나보기위하야축항(築港)공무소(工務所)출장소압흘지나가다가발이미끄러저 무참히 빠져죽엇는데 시톄는그후약 세시후에야발견하엿슴으로 진남포 경찰서(警察署)에서는시톄를곳그부모에게인도하엿다더라(진남포)

國際語紀念講習

국제어(國際語)『에스페란토』를위하야 삼개년간이나 노력하여오든 경성에스페란토』연구회(研究會)는 지난일일부터 『조선(朝鮮)에스페란토학회(學會)』로일홈을고치고 순전히 학술뎍으로연구하는 동시에 더욱보급(普及)식히기위하야 오는 십이일부터 이십일일간에 한하야 창립기념강습회(創立紀念講習會)를개최한다는데 금번새로피임된 임원은아래와갓더라

會長 柳委員長 大山時雄 庶務部委員 柳基東 學術部委員 魚瀲 中垣虎兒郎 言語部委員 崔登 宣傳部委員 小野忠正 長久保榮治郎 社交部委員 朴榮來 秘書 金寬彩

龜城郡에서는
군자금모집

지난팔일오후 열한시경에 무장단네명이 귀성군사긔면 송백동(龜城郡沙器面松栢洞)에나타나 박창린(朴昌麟)의집에 침입하엿다가 어데로종적을 감추엇다는데 귀성경찰서에서는그뒤에 대하야 방금엄탐중이라더라(귀성)